



대림주보

대림 제1주일 2020. 11. 29. (나해) 제2243호

2021년 교구장 사목교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친애하는 교구민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풍성히 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구는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제1차 교구 시노드’를 개최하였으며, 10여 년 전에는 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차 교구 시노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은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초대 교구장이셨던 안세화 드망즈 주교님께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도움을 청했던 원의와 정신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이 땅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여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해인 ‘치유의 해’에 우리는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고통을 받았으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위기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때문에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를 느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세상과 함께 오늘날 교회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영세대가 감소할 뿐 아니라, 주일미사 참례자, 주일학교 학생과 청년들, 그리고 성소지원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 냉담 신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때문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부와 정보의 편중,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계층·세대·지역 간의 갈등과 관계 해체,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더욱 크게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문화, 물질의 소유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지배하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적 가치관으로 이겨내야만 했던 도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복음의 기쁨 5항)할 것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새롭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 “신앙의 기쁨이 더디지만 분명하게”(복음의 기쁨 6항)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구 설정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2030년까지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말씀, 친교, 전례, 이웃사랑, 선교라는 다섯 가지 핵심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제안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서로가 신뢰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각 대리구와 본당들도 교구의 장기 사목방향에 발맞추어 자신들만의 실천방안과 후속 조치를 찾아 모두 함께 이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2년 동안(2021~2022년)은 ‘하느님 말씀을 따라’라는 주제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어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풍성하게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늘 고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복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힘과 희망을 얻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과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기본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알아듣는 교육과 양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2년 동안 교구, 대리구, 본당 차원에서 무엇을 실천할지 고민하고, 교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20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 조환길 타대오

기다림의 준비



황성본당 주임 | 김정렬 베드로 신부

첫 번째 대림초가 제대 앞에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맞이합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고, 우리가 새로운 자세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준비하는 것은 힘듭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활기는 분명 다름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일부러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적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한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이때가 되면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행해온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대림 시기, 우리에게 오실 분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즘은 모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대림절을 맞이하는 의미는 어떠한가요? 바쁜 우리 삶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현재의 힘들고 닳은 내게 있지 않고 다른 이에게 있다고 서로에게 미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현실에서 별다른 주의 없이 반복되는 일을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로운 힘은 당신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오고 그렇게 갑니다. 바로 '깨어 있음' 이겠지요.

우리는 이제 2021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그 시간이 그저 우리 걸을 스쳐 지나가는 그려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음'을 위한 우리의 특별한 다짐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들은 대림 시기 동안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마르 13,37) **필문**

사랑의 고달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 이웃사랑, 자기사랑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고 사는구나 싶습니다. 특히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9)”는 이 말씀은 이웃사랑과 자기사랑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웃사랑을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사랑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결혼 문제에 있어, 부모와 자녀가 대립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세상 누구보다 자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겠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관점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게 되고 답답해집니다. 심지어는 큰 불화로 이어지지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한 것(이웃사랑)인데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이고 그런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지 않는 것(자기사랑)처럼 생각되어 상처를 받습니다. 마치 ‘너를 위해서 ... 하는 거야!’와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하게 해주어야지!’하는 말로 들립니다. 여기서 부모는 무조건 자녀의 관점에 맞추고 양보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부모의 말을 따라야 제대로 사랑하는 것 일까요? 정답을 찾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기사랑, 이웃사랑의 대전제가 ‘관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자기사랑을 착각하지 않으려면 관계에 대한 상호간의 관점과 가치관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김’이라는 친구 신부가 있다면, 친구 김신부가 저와의 관계에서 ‘친구’가 무엇인지, 어떤 눈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알아야 하고 반대로 친구 김신부도 제가 생각하는 ‘친구’, 이 관계에서 제가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부터 진짜 이웃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이 노력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지요. 고달픈 일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우리들은 그냥 편하게 하던 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사랑을 잔뜩 해놓고선 이웃사랑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여겨 괴로움에 빠집니다. 혹은 자기사랑 없는 이웃사랑,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너만 잘되면 난 행복해.’라는 것이 사랑이라 착각하여 자기사랑하기를 외면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편하게만 사랑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필문**



이중배 마르티노 (1751?~1801년)

이중배(李中培) 마르티노는 경기도 여주의 양반 집안 출신으로, 본래 용기와 힘이 남보다 뛰어나고 호쾌한 기개가 있었다. 반면에 그에게는 난폭하고 성을 잘 내는 성격도 있었는데, 이러한 성격은 그가 천주교에 입교한 이후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1797년 마르티노는 사촌인 원경도 요한과 함께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김건순 요사꾼으로부터 천주교 교리에 대해 듣고는 즉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부친과 아내에게 교리를 전하였으며 특히 그는 누가 알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였는데, 그의 용감한 성격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1800년의 부활 대축일에 마르티노는 사촌 요한과 함께 동료의 집으로 가서 부활 삼종 기도를 바치고, 성가를 부르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바로 그때 천주교 신자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는 밀고를 받은 여주의 관장이 즉시 포졸들을 그곳으로 보내 신자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관청에 끌려가자마자 마르티노 일행은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그들은 자주 마르티노의 굳센 용기와 격려로 힘을 얻어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마르티노의 옥중 생활은 6개월이나 계속되었다. 그동안 그는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으나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였다.

“아버님, 저는 효의 근본을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도 저와 같은 신자이시니, 부자의 정을 넘어 더 높은 곳에서 이 사실을 바라본다면, 인정에 끌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배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800년 10월에 마르티노와 동료들은 경기 감영으로 이송되고 다음 해 신유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경기 감사는 옥에 갇혀 있는 신자들을 다시 끌어내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마르티노는 이에 굴하지 않았으며, 동료들과 함께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 나갔다.

감사는 마침내 최후 진술을 받아서 조정에 보고하였고, 조정에서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처형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마르티노는 동료들과 함께 여주로 압송되어 1801년 4월 25일(음력 3월 13일)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50세가량이었다.

이에 앞서 경기 감사가 조정에 올린 마르티노의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천주교에 깊이 빠져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없앴으니, 그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63,16ㄹ-17,19ㄸㄹ; 64,2ㄹ-7	제 2 독 서	1코린 1,3-9	복 음	마태 13,33-37.
화 답 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는 성탄과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가정성화 기도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기도서를 활용하여 성가정 축일까지 《12.16(수)~27(일), 12일간》 가정성화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11.29(일) ~ 12.8(화) 17:00 / **대상:** 각 가정 구성원 누구나
주제: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가정성화 기도
가격: 1,000원 / **방법:** 각 본당별 신청(본당사무실 문의)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2020년 11월 29일 ~ 2021년 11월 27일)

• 희년 개막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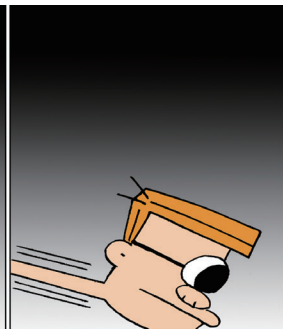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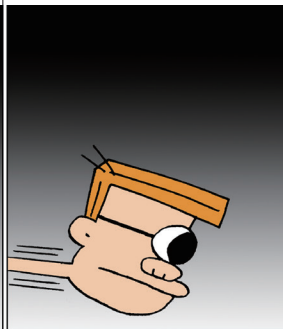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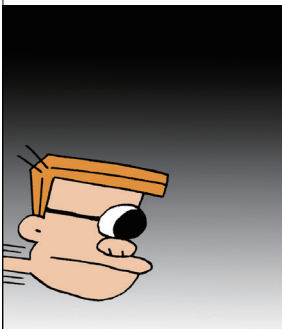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개막미사가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 12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있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대림 제1주일 미사를 같은 지향을 두고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희년 전대사 수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 동안 신자들이 일정 조건으로 기도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대사 수여 조건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구세주 오심을...

미사 안내

수험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미사

12월 1일(화) 11:00 성모당

교육 | 모집 | 기타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1월 중순~5월 초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선착순 8명)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143-5508

가톨릭상지대 2021학년도 수시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2차: 11.23(월)~12.7(월)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예수회 송봉모 신부 성경대학 동영상 강의

한 학기 7회 동영상 링크 발송(3월 개강)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모집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서울 동선동)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40세 미만 신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2020년 우리의 삶을 바꿀 기적의 영화!

영화 <파티마의 기적> 12월 3일 개봉

세계 3대 성모 발현지 중 하나인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일어난 성모 마리아의 발현, 그를 목격한 세 명의 아이들의 놀라운 만남과 위대한 증언을 담은 작품

※ 상영관: CGV (상영관 및 시간은 CGV 홈페이지 참조)

대구주보 2021년 상반기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 등 기존의 신앙 수기 형식이 아닌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

형식 및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 A4 1페이지 분량

기간 및 방법 |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또는 방문 접수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교구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이 앞 ☎ 053-959-7175
☎ 010-9597-7175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의학박사 (현 안세대 외래교수) **박종원** (소시모)

안과전문 의 **장주현** (비비안나)·**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아트도서관

국내 첫 미술전문 도서관

도서관·갤러리·미술관·북카페

12만 여권의 도서, 수백여점 미술품 감상 (주차장 有) NAVER 아트도서관

관장 허두환 경일시메온 010-3588-5252
정순금 세실리아 010-6584-5252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가톨릭피부과 의원
CATHOLIC SKIN CLINIC

57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전문 의 이수윤(소피아), 홍정홍(대건안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차리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3요한 1,2)

전인병원

☎ 대표전화 | 1688-7667

위령성월 전대사 공지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라 11월 한 달간 위령성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선배(요한) 신부
1933년 12월 1일
- 강찬형(파스칼) 신부
1995년 12월 5일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2.6(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35세
문의: (010)9937-0901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

일시: 12.23(수) 16:30~25(금)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피정의집
비용: 24만원, 대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 (010)6791-0071

행사 | 모임

작은예수의집 가족 작품 전시회

장애인 그룹홈 작은예수의집 가족들의 작품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12.7(월)~13(일)

장소: 박물관 휴르(범어동)

문의: 652-6740

교육 | 모집

파스카 청년성서 팀공부 모집

성경공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대상: 청년
문의: 교구 청년국, 255-1582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12월_박용욱(미카엘)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4:00 / 19:00
대구CEO합창단: 화, 수 14:00 / 19:00
장소: 평생교육원(용산역 도보 5분 거리)
문의: (010)3512-1565

주말 성령묵상회

일시: 12.12(토)~13(일) / 12.19(토)~20(일)
시간: (토) 13:00~18:00 / (일) 9:30~18: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설화명곡역 (토) 12:00, (일) 8:50
비용: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780-4535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
문의: 간호과, 320-2750
<http://www.tcmccch.co.kr>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인규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요양원 시설명칭 변경

변경일자: 2020.11.1~
당초 시설명: 대구가톨릭치매센터
변경 시설명: 대구가톨릭요양원
문의: 616-2141

갤러리 1981 대관 모집 안내

2021년 홍보 팜플렛 제작 전 대관 계약한 작가 팜플렛 홍보혜택
일정: 2021년 연중
장소: 교구청 내 가톨릭여성교육관
문의: 254-6115

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
(암 환자 우대)
문의: (054)373-3955
(010)5225-4538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은진종합건설 리모델링
보일러, 수도누수, 방수 페인트, 타일, 창호 지붕공사, 전기누전, 막힌곳 “뽕”
정상진(그라시아노) 권순여(그라시아)
010-3526-7401

기백한의원
허리, 어깨, 손발저림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곽재혁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 **053-255-2211**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피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피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이데오피스·문구
Canon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
흑백복사기(A3) 중고 기증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진동 학회장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